

민주당 FTA 후폭풍 거세다

야권통합 차질 우려 지도부 사퇴 요구는 안해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전격 처리된 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도부 비판을 넘어 사퇴까지 요구했으나 야권통합과 관련,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야권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지도부 사퇴가 불가하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사그라졌다.

하지만, 야권통합 추진과 향후 대외 투쟁 과정에서 또다시 지도부 책임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 밤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망연자실한 분위기 속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최인기 의원은 “지도부가 무능했다. 강행 처리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협상과정에서 얻어낸 것도 없었다”며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 (비준안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이 이낙연·장세환·김진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나 손 대표 등이 만류하며 일단락됐다. 대다수 의원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인 야권 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사퇴론이 증폭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통합을 마무리해야 하는 지금은 지도부가 사퇴할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지도

부 사퇴 논란은 어제 의총에서 일단락됐다. ‘한미 FTA 강행처리 책임이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 있는데, 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사퇴하느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에도 박지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철야를 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 무릎 꿇고 대국민 사죄를 한들 용서를 받겠습니까”라며 “총사퇴와 지도부 사퇴도 논의 어떻게(하나) 진퇴양난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중앙위 야권통합 사고 격론

“원샷통합전대” “先독자전대론” 팽팽 ... 표결 여부 충돌

통합 논의의 향배를 결정할 민주당 중앙위원회의가 23일 오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개최됐지만 통합 전당대회 지지 세력과 선 민주당 전대 지지 세력 간에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날 밤 늦게까지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외에서는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통합 전당대회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는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중앙위원 454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47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통합 전대 지지 세력과 선 민주당 전대 지지 세력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실제로 손학규 대표의 개회사 도중, 선 민주당 전대를 지지하는 일부 중앙위원들이 ‘손 대표 퇴진’ 등을 주장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가 하면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은 “통합에 지분 나누기는 없다. 통합의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화진 의원은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려면 이런 열망을 담아낼 그릇을 하

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통합 전당대회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혁신과 통합에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통합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유선호 의원은 “지도부가 졸속 통합을 추진해 오히려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는 밤 8시 넘어서까지 당 지도부 인사들과 중앙위원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 개진이 계속됐다.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당 지도부 측에서는 이날 밤 늦게라도 통합 추진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 민주당 전대를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당 지도부의 표결 처리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력하게 반발, 최종 표결 여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결정되지 못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범야권 통합 방식을 놓고 사실상 세 대결이 벌어지면서 과거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과국을 막기 위해서 오는 27일 중앙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기국회 올스톱... 행안위 반쪽회의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강행처리로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민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7개 상임위원회의의 전체회의 혹은 소위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제외하고 모두 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나라 “FTA강행 불가피한 선택”

한나라당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자제를 최대한 낮추면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최고·중진 연석회의 일정을 취소했고, 의원들도 한미 FTA 언급을 아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앞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달라”며 “당분간 술자리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김기현 대변인이 이날 오전 라디오에 연세 출연, 한나라당 입장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사실상 미국의 허가장을 요구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며 “야권연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정치쇼를 통해 내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민주당의 의도 때문에 국가이익

이 좌절될 수 있겠느냐”며 비준안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내에서는 ‘본회의장 최후탄 사태’를 일으킨 민주당 노동당 김선동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제명 조치, 국회의장의 고발 등 초강경 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송광호 의원은 “이번 최후탄 문제는 윤리특위의 권한을 초월하는 것으로, 특수

업무방해죄 등을 국회의장이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후속 대책과 관련, “여야가 합의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 100%를 시행할 것”이라며 “거기에 추가로 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현재 대통령이 고심 중이고, 지금 추가 대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 “다소 냉각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24일부터 자체적으로 민생예산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노 “최루탄은 국민 분노 대변”

민주노동당은 23일 자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데 대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대변한 것”이라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루가루로 의의성이 잠시 비워졌을

때 그 틈을 뚫고 해치고 올라가 무산시키지 못해 정말 한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김 의원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자랑스럽다. 윤봉길 의사였다. 안중근 의사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재균, 26일 광주서 출판기념회

민주당 김재균 의원(민·광주 북구 을)이 26일 오후 3시 전남대 대강당에서 자신이 쓴 정치에세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무기’(이하 희망의 무기)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의원은 이 책에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과 지역에서의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싸우는 정치현장에서 느낀 분노와 좌절, 희망을 다룬 10여 편을 수록해 시인으로서의 장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실정과 방만 등 반 서민, 지역차별, 독선에 이르는 낯선 질타와 문제제기 등을 함께 수록했다.

책 제목인 ‘희망의 무기’는 김 의원이 2011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인권운동가인 중국의 아이웨이웨이의 구름에 따른 실경을 시로 써 낭송한 ‘아이웨이웨이를 기다리며’에 담긴 시어에서 따온 제목이다.

“U선수촌 지역업체 확대해야”



광주시의회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은 23일 “현대건설이 2015하게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끝수를 부리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확대를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최근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제시한 ▲공사예정금액 이상의 시공능력 ▲B 이상의 신용등급 ▲최근 2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공실적 등의 입찰참여 자격 조건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현대건설이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확대를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3개 컨소시엄 참여를 시행하지 않으면 광주시의회의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에 대해 무효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범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안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인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호텔 코카콜라 현대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전복장터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